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30

사사기 19-21장 두 번째 부록, 베냐민의 분노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30회기, 사사기 19-21장, 두 번째 부록, 베냐민파의 분노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이 부분 에서 우리는 사사기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하나이며 이를 통해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부패와 배교의 하향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입다, 특히 사사 가운데서 삼손에게서 정점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17장과 18장은 미가와 그의 레위인의 부패와 그가 행한 개인화된 종교와 단 지파가 거기에 연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9장과 21장에서는 도덕적, 영적 부패가 더욱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분노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여 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 큰 내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레위인에게서 시작됩니다. 17장은 에브라임 출신의 미가라는 사람과 함께 한 레위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그는 젊은 레위 사람을 고용합니다. 17장 7절에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청년이 레위 사람으로 우거하다가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땅으로 가고자 하여

19장 1절은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주목하게 될 첫 번째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한 지도력의 부족으로 인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19절 1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다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17장에는 유다 출신의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9장에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내와 첩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는 그녀가 그에게 불성실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정말 나쁜 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일어나 그 뒤를 따라가서 그에게 친절히 말하려고 하더니 그 젊은 여자의 집에 들어가니 그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더라.

그리고 그가 하룻밤을 묵었다가 떠나고 싶어하는 길고 반복적인 주기가 있고, 그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점점 더 오래 머물고 결국 그는 거의 일주일 만에 가깝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젊은 여자는 여기서 실제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레위인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할 만큼 그 레위인을 좋아했음에 틀림없으며 아마도 이 시간 동안 그는 딸이 남편과 함께 돌아가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레위인은 배부르게 먹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는 밤을 지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 곧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이쯤, 서쪽으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안장을 엮은 두 마리의 나귀와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작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몇 절에서 그와 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여부스 근처에 도착할 때 11절에서 종이 말하기를, 여기 예루살렘 성에 가서 머물자고 합니다. 여부스 사람. 그리고 주인 레위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루살렘, 여부스를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유다는 남쪽에, 베냐민은 북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15장 63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도시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중립 지대였으며 실제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레위 사람과 그의 종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은 그 성읍을 외국 성읍으로 여기므로 그 성에 머물기를 싫어하더라.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나서야 다윗은 그 도시를 점령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물론 유대 도시, 이스라엘 도시, 그 나라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로 넘어갑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냐민의 영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거기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광장으로 들어갑니다. 16절부터 21절은 그가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의 환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섹션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밤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간 동안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22절).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을 쓸모 없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몇 번 더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무가치한 사람이고, 삼손은 무가치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다른 판사 중 한 명은 실제로 쓸모없는 동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좋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들이 이 노인에게 하는 말은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구약성서에서 안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인지적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성적 결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이 구절에는 매우 강한 울림이 많이 있습니다. 롯과 그 도시 사람들이 롯에 와서 그가 손님으로 초대한 두 사람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롯은 대신에 그의 딸들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데, 집주인인 남자가 나가서 "아니, 그렇게 악한 짓을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으니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그의 첩이 있느니라.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는 이유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구절과 창세기의 구절이 실제로 동성애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성경 학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에서 강하게 정죄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강하게 비난받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동성애 행위의 시대를 끝내려는 소망이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아니요'라고 제안하거나 '아니오'라고 주장하는 다른 통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동성애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남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동네환영위원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룯의 반응과 이 남자의 반응이 모두 젊은 여성을 제안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말며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악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주장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한 응답은 대개 주어졌습니다.

논쟁은 약간 바뀌었고 이제 동성애 관계의 합법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문제는 동성애 행위의 사실이 아니라 문란한 동성애 행위이며 이것은 동성애 강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동성애에 관해 이야기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 특히 로마서 1장의 바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활동 자체는 사악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

그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자기 처녀 딸과 그 사람의 첩을 거기에 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범하고 그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들에게 멋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지 말라. 내 손님. 그 남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집주인이 이르되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나가게 하고 그 여자를 알며 학대한 것 같으니 밤새도록 아침까지. 아침에 주인이 나오자 그녀는 문앞에 쓰러진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거기 죽은 채로 누워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레위인은 자신을 영광으로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소 냉담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그는 일어나 가자고 말합니다.

그녀의 명백한 고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녀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태우고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면 칼을 들고 그녀를 12조각으로 자르고 이를 위한 집결지로 그 조각을 12지파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19장의 초반부에서 그가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자를 이 첩에게 행하는 그의 소름끼치는 행동은 여기서는 다소 냉담합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잃었고 이제 이 문제를 더욱 국가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폭동이 일어난 성읍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 간의 대결로까지 확대된다. 이 사람은 그 지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장은 20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매우 파괴적인 내전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나는 앞서 2-16장이 이스라엘과 외부, 즉 외부의 적과의 갈등에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7-21장은 내부 갈등과 자기 파괴적인 갈등에 관한 것이며, 확실히 여기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끔찍하고 끔찍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20장 1절 이하.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두가 옵니다.

단은 북쪽에 있고,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 중부에 있는 미스바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백성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사십만 명이요.

칼을 뽑은 남자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초대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은 4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7절에 레위인은 이렇게 분노하므로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조언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이 악한 일이 처리되기 전에는 우리 중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한 사람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통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범죄자를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킨 무가치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이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이 끝나자 베냐민 자손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14절 이하에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 남자가 이만 육천 명이요(15절). 나머지 이스라엘에는 40만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 중에 정예가 700명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중에 택하여 물매를 던지는 왼손잡이가 70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투에서는 오른손잡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둘은 오른 손잡이 투석꾼의 특정 각도, 궤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슬링어가 있었다면 유리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오른손잡이인 테니스와 비슷합니다. 왼손잡이 선수가 있으면 상대를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는 다시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보다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갈까요? 그리고 다시 대답하자면, 이미 1장에서

언급한 것을 기억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먼저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8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를 향해 진을 쳤다. 그리고 이제 일련의 공격과 거부, 그리고 반복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음 몇 단락에 걸쳐 세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두 번은 베냐민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라우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정된 완전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28절에 비느하스가 언급됩니다. 그 직전 26절에서는 베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군대가 그 땅 한가운데에 도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27절 끝에 있는 괄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베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아론의 손자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궤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마도 여기서 이벤트가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작은 지표이기도 합니다. 비느하스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8장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손자에 대한 표시와 함께 두 가지 표시는 모두 이 마지막 장이 해당 기간의 초기에 발생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점까지 모든 것이 가라앉은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묻자 주님은 28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일을 위하여 올라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그들은 매복을 하여 안으로 들어가 결국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 번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베냐민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함께 모여 분노에 맞서고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을 때 나머지 민족들은 그것이 거짓 예배의 제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함께 몽쳤던 것과 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통해 거짓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거짓 제단을 쌓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밝은 희망, 한 줄기 빛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나쁜 만큼 11지파가 이 분노에 맞서 단결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고 그들이 여기서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44절, 베냐민 자손 중 옆드러진 자가 만 팔천 명이니 다 용맹한 자더라.

45절에는 2,000명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 날에 쓰러진 사람은 모두 25,000명인데, 이는 35절의 25,100명 외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전국적인 대학살을 촉발한 불꽃, 방아쇠는 거의 한 사람, 이 베냐민 사람, 미안해요, 이 레위 사람의 이기심과, 무가치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자기 집을 열어주는 사람의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첩을 강간하고,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레위인도요. 이것이 바로 사물의 눈덩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48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과 사람과 들짐승과 만나는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칼날로 쳤으니 그들이 발견한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족속을 대적하여 행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자기 동포 곧 자기 형제 가운데서 자폭하여 그들을 멸절하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한 요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우리는 우리 형제 중 한 부족을 전멸시켰습니다. 어쩌면 그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장 첫 문단 1절부터 7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자들의 아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아내와 딸을 주지 않기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으니 베냐민 지파를 부흥시키는 일에 다른 사람이 기여하게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적인 감정이 앞뒤로 있고 사람들은 일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라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없었다고 누군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에게 아내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를 하찮게 여기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소위원회나 의장을 갖기로 결정하는 기업이나 학부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생각나게 합니다. 의장이 되거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나라가 그 용맹한 자 12,000명을 보내어 가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칼로 치고 그 여자들을 빼앗아 다 진멸하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찾아 데려오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12절, 온 회중이 모이고 베냐민 자손은 그리로 돌아오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400명의 여자를 주었지만 베냐민 자손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파하셨으므로 백성이 베냐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앞뒤로 오고 가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틈을 열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을 위한 아내를 찾는 두 번째 단계, 즉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젊은 여자들 400명을 빼앗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16절에서 베냐민 여자들을 멸절시켰으니 그 아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유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아내를 줄 수 없습니다(18절). 그래서 그들은 “자, 실로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례 축제가 열리고 여자들은 추수 축제를 위해 밖에서 춤을 출 예정입니다. 매복 공격을 하여 200명을 더 납치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이 결국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가서 이것을 하라고 말하므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23절). 베냐민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수효대로 아내를 데려다가 사로잡았더라.

그런 다음 그들은 가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들을 재건하고 정착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장의 끝은 다소 평화롭게 들리며,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24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에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의 지파와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나갔느니라.

이는 여호수아서의 결말과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땅에 정착하고 자기 소유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조슈아에서는 다 좋았지만 여기서는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엄청난 비용과 수천, 아니 수만 명이 죽고 흩어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젊은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최종 견해를 밝히며 "아니,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눈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을 주님을 따르고 율법에 뿌리를 내리도록 이끄는 경건한 왕이 있었다면,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국가 전체에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엄청난 죄와 엄청난 배교와 국가 전체의 내리막길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만일 경건한 왕이 있었다면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를 결론 내릴 때, 다시 강조하자면, 주요 주제는 단지 주님을 버리는 영적인 배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항상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더 나은 일이 올 것이라는 신호, 즉 음표가 울려 퍼집니다. , 아니면 경건한 왕이 있었다면 상황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룯기와 사무엘서를 통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과 그 뒤에 있는 몇몇 경건한 왕들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앞으로 더 나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책 중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30회기, 사사기 19-21장, 두 번째 부록, 베냐민파의 분노입니다.

